

申告 收拾되었다. 한편 文化財委員會에서는 秦弘燮 委員과 鄭永鎬 專門委員을 現
地에 派遣 遺構와 遺物을 調査하게 하였으며 이와는 別途로 國立博物館에서는 現
地에서 遺構를 發掘 調査하여 孫龍甲氏가 發見한 遺物外에 若干의 遺物이 追加되
었다. (本號 李殷昌氏 論文 參照)

◎ 文化財特別展示

文化財管理局에서는 九月 二十四일부터 「國寶·寶物中 個人所有文化財展示」
「埋藏文化財展示」를 德壽宮美術館에서 開催한다.

◎ 韓國考古學會創立

지난 九月 七日 國立博物館에서 關係者가 會合하여 韓國考古學會 創立에 關한
問題를 論議한 끝에 規約을 通過시키고 會長에 金載元, 常任幹事에 韓炳三, 評議
員에 尹武炳 金正基 金元龍 崔淳雨 黃壽永 秦弘燮, 幹事에 鄭良談 任孝宰를 各
各 選出하여 創立에 合意하였다.

— 第八卷 第十號 通卷八十七號 —

大圓寺 雙龍浮屠와 五層石塔

金 鍾 太

全州에서 雲岩行 岬스를 타고 二十五里쯤 가다가 完州郡 仇耳面 元
基里 앞에서 내리면 母岳山東麓이 시작된다. 여기서 母岳山을 한 三 km
쯤 오르면 중턱 깊숙한 곳에 山林이 울창하고 溪谷으로 시원한 냇물이
흐르는 곳에 東向하여 大圓寺가 있다.

大圓寺는, 現 住持 李鏞一氏의 말에 依하면, 百濟 第三十八代 武王시
에 大原大師가 創建한 것이라고 하나 佛教大辭典에 依하면 一〇六六年
高麗 文宗 二十年 圓明國師가 創建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어느 것이 事
實인가는 좀더 細密한 研究가 必要하다.

大圓寺에 現存하는 遺物은 法堂前 右便 陵衍에 四基의 浮屠와 後左便
溪谷에 六基의 浮屠가 있고 法堂後 一〇m 地點에 五層石塔이 遺存할 뿐

이다.

一、雙龍浮屠

이 雙龍浮屠는
前述한 法堂 後左
便 五〇m 떨어진
溪谷에 다른 浮屠
와 함께 遺存하는
데 배가 부른 圓
筒形의 塔身에 浮
刻된 雙龍의 彫刻
이 特秀할 뿐만 아
니라 類例가 없는
작품이다.



이 浮屠는 伏蓮괴임 地臺石위에 浮屠塔身을 놓고 八角屋蓋를 具備했
는데 本來 屋蓋石 위엔 따로 伏蓮을 놓았으나 지금은 缺失되고 各轉角에
損傷이 많다. 浮屠의 石質이 軟한 白雲母片岩이어서 臺石과 屋蓋石은
磨滅이甚하며 特히 地臺石은 彫刻의 形態조차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浮屠身의 彫刻은 모두 陽刻으로 되어 있고 下部엔 復葉仰蓮을 돌렸으
며 바로 그 위엔 네군데 浮雲을 刻하여 雲中에서 如意珠를 다루고 있는
形態이다. 龍의 形像은 南北으로 相反하여 몸을 도사리고 龍頭를 西向
하여 구름을 吐하고 있다. 如意珠는 龍의 뒷발로 발톱에 끼어 相互가 다
투는데 서로 다루는 힘이 발톱에 나타나는데 뒷힐차게 보였다. 龍全身에
浮刻된 비늘은 머리에서 꼬리까지 아주 細密하다. 발은 四個씩인데 前
足 하나는 구름을 딛이고 하나는 相反하여 포개고 있다. 後足 亦是 하나
는 구름을 딛이고 하나는 如意珠를 다룬다. 上部엔 相反하여 浮雲이 二
個 있고 그 위엔 平坦한 구름이 포개 모양으로 둘러 있다.
上部 屋蓋石 밑에는 舍利孔이 있는데 이 舍利孔 壁에는 墨筆의 文字
가 있으나 解讀하기 어렵다. 實測値는 길이 二四·五(cm) 內徑 二六·五
外徑 四一·五이다.

浮屠의舍利孔으로서는 아직 이렇게 큰 것을 보지 못하였다.

全高 一三三二(cm) 地臺石徑 九〇 塔身 둘레 上端 一九〇 下端 一八四 最大 二二三 塔身高 九二

이 無名 浮屠의 製作 手法 和 造成 年代는 高麗 中葉 佛教 藝術의 發達 和 함께 浮屠 藝術이 極度로 발달하면서 이와 같이 浮屠 表面을 裝飾하는 大作을 남겼으리라 고 生覺한다. 더구나 大圓寺는 金山寺와 不過 十里 밖 에 안되는 가까운 곳이므로 金山寺의 石鍾 六角多層石塔 等の 作品에 比하여 뒤떨어진 作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高麗 中葉 金山寺를 比 못한 이 地方의 浮屠로서는 代表的인 作品으로 믿어 진다.

二、五層石塔

法堂後面 一〇m 地點에 安置된 이 五層石塔은 百濟系統의 通式을 이 어 받은 型式으로서 中間에 倒壞된 것을 復元한 것으로서 三層과 二層 의 塔身이 바뀌고 二層 屋蓋石이 缺失되었다.

單層基壇을 갖추고 相輪部는 露盤부터 缺失되어 있다. 正方形 地臺 石은 角形받침에 基壇을 놓았으며 基壇面石은 六枚石으로 前面石이 二 枚인데 한개가 缺失되어 基壇內部를 볼 수 있다. 隅柱는 左右面石으로 代置되었고 그 以上 塔身에는 없다. 甲石은 一枚石으로 角形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으며 塔身은 各層마다 形態가 不規則의 形으로 되어 있는데 二層塔身과 三層屋蓋石、三層屋蓋石과 四層塔身이 各各同一石이다. 初 層塔身 前面에 佛像이 아닌 文樣이 있으나 식별하기 어렵고 屋蓋石은 各層마다 三段의 받침이 있다.

이 塔이 現在 不規則하게 서 있는 原因은 中間에 倒壞된 탓이다. 대체로 塔의 均衡이 未備하며 屋蓋가 厚肉하고 轉角이 愚鈍하여 輕快 感을 주지 못한다. 年代는 麗末까지 는 내려오지 않을 줄로 推定된다. 實測值는(cm)

基壇部 地臺石 長 一三一 基壇面石 高 四〇 幅 五五 甲石 長 九七 厚 九 塔身部

高 幅 屋蓋長
第一層 四〇 五三 八六

第八卷 第十號 通卷八十七號

第二層	八·五	四五	七〇
三	一三	四八	六七
四	六	三七	五五
五	六	三五	四六

寶泉寺址三層石塔 修理後記

孟 仁 在

今年 六月 舍利遺物盜取行爲 때문에 被害를 받은 慶南 宜寧所在 寶泉寺 址 三層石塔의 修理復舊가 있었다. 塔은 一層身石까지가 地面으로 倒壞 되는 큰 被害를 입었으며 그 直後에 있는 文化財管理局의 公式調査에 이 어 六月 十四日부터 同 二十五일까지 約 十日間 修理工事が 계속되었다. 工事에는 崔淳雨 委員과 筆者가 參加하였다. 倒壞로 因한 被害範圍는 大略 다음과 같다.

- 下基壇甲石.. 東南隅角部에 九五cm, 六二cm, 七二cm 邊長의 三角形으로 切斷되고 이로 因한 附隨의 破損(三片)이 생긴다.
 - 二層身石.. 底裏 二個所에 約 四cm, 一一x六cm 程度의 擦過傷이 났으나 破片은 粉碎됨.
 - 三層屋蓋石.. 西便침하리리 및 一部 落水面에 最少 約 三cm長, 最大 約 三四cm長 等 約 二〇片의 破片傷을 받음. 西北隅角部는 各邊長 七九cm, 六六cm, 五一cm의 三角形으로 切斷되었고 切斷部는 層級받침刻 第二段에 미침.
 - 三層身石.. 크게 半으로 切斷되었으며 그에 따른 破片은 大小 約 四〇餘片 程度로 全破되었음.
 - 三層屋蓋石.. 침하리리 및 層級받침刻에 九個所의 僅少한 擦過傷을 입음.
- 破損範圍는 以上과 같으나 石材는 下基壇 甲石에 落下하거나 落下한